

일제강점기 간이학교 제도에 관한 고찰*

송 숙 정**

(e-mail : suejoan@hanmail.net)

<목 차>

- | | |
|---------------------|-------------------|
| 1. 서론 | |
| 1.1. 연구목적 | 3.2. 간이학교의 급성장 |
| 1.2. 선행연구 | 3.3. 간이학교의 형태 |
| 1.3. 연구자료 | 3.4. 간이학교 설립비용 조달 |
| 2. 간이학교 제도의 태동 | 3.5. 간이학교의 일본어 교육 |
| 2.1. 일본에서의 간이학교 제도 | 4. 조선 간이학교의 변화 |
| 2.2. 조선에서의 간이학교 제도 | 4.1. 도시 간이학교 |
| 3. 조선 간이학교의 특징 | 4.2. 정규학교로의 승격 |
| 3.1. 간이학교의 설립목적과 특징 | 4.3. 의무교육에 대한 요구 |
| | 5. 결론 |

키워드 : 簡易學校(Simple school), 植民地言語政策(Colonial language policy), 義務教育(Compulsory education), 教育制度(Education system), 初等教育(Primary Education)

1. 서론

1.1. 연구목적

간이학교 제도는 1934년 조선총독부 학무국에서 조선의 문맹퇴치 전선을 확대하기 위해 실제적 교육을 강화하고 보통교육을 보급한다는 미명 아래 실시한 교육제도이다. 간이학교는 단기 초급교육기관으로 초기에는 농촌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산업의 발달과 함께 도시로 몰려드는 인구를 감당하기 힘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A8045776)

** 중원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식민지언어교육

들게 되자 도시 간이학교의 형태도 생겨나게 되었다. 처음에는 일본어 보급 확대와 함께 초보적인 직업교육을 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여 지방 실정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매우 달랐다.

본고에서는 간이학교 교육제도의 실상을 살펴보는데 목적을 둔다. 먼저 제도적인 면에서 당시 조선총독부가 내세운 설립목적, 특징과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 검토하고 당시의 실상을 면밀히 알 수 있는 신문 기사를 통해 그들의 정책과 실상이 어떠한 점에서 크게 달랐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당시 일본어 교육을 위해 사용된 교과서 내용을 일부 살펴봄으로써 조선에서의 일본어 교육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1.2. 선행연구

간이학교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보타 유우코(久保田優子, 2008)는 「近現代韓國の日本語教育—簡易學校について—」를 통해 간이학교의 개요 및 특징, 설립 실태 등에 대하여 개관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1934년 4월 1일 공포된 간이 초등교육 교육기관 설치 요강을 그대로 옮겨 온 것이 대부분이고, 간이학교에서의 국어교육의 실태는 전라북도의 ‘궁사(弓四)간이학교’의 경영안을 그대로 가져와 논문에 인용한 것으로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지만, 당시의 전체상을 살펴보기에는 역부족이다.

정혜정(2008)은 「일제하 간이학교(1934-1942)와 근대 노작교육」에서 ‘매일신보’, ‘조선중앙일보’, ‘문교의 조선’을 대상으로 당시 발행된 신문, 잡지에 나타난 간이학교 교육과 노작교육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는 1935년 11월 15일자 매일신보 기사를 인용하여 ‘정식학교 1개보다 간이학교 10개를 설립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간이학교 제도는 문맹퇴치와 의무교육제를 쉽게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써 강조될 뿐만 아니라 사상통제와 노동력 효율이 뛰어나다고 하였다. 그러나, 필자가 살펴본 바로는 간이학교 제도만으로 문맹 퇴치를 이루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의무교육제 또한 당시의 실상과는 차이가 있어 이러한 주장은 필자의 논지와 상반된다고 하겠다.

박제홍(2015)은 「간이학교의 황민화교육-조선총독부편찬 간이학교용 교과서를 중심으로」에서 조선총독부가 편찬한 간이학교용 교과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 가운데에서 황민화 교육에 관한 부분만 특화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국내에서 입수 가능한 1기 『簡易學校國語讀本』의 2, 4권과 2기 『簡易學校用初等國語讀本』의 3, 4권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로 간이학교용 교과서 전체의 경향을 분석하였다고 보기엔 어렵다.

오성철(2005)은 『식민지 초등교육의 형성』에서 간이학교 제도에 관해 언급하고 있지만 1930년대 초등교육의 확장만을 언급하고 있어 1940년 이후의 간이학교 제도의 변화과정에 대한 언급이 생략되었다.

본고에서는 간이학교 제도가 시작된 1935년부터 1945년 해방을 맞이하기 전까지의 간이학교 교육제도의 변화과정을 살펴본다는 의미에서 선행연구와는 차별된다고 하겠다.

1.3. 연구자료

일제강점기 간이학교 제도에 관한 실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일제강점 36년간의 조선총독부의 시정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조선총독부 30년사』¹⁾와 1920년부터 1940년 8월까지 국한문혼용으로 발행한 『동아일보』 기사를 살펴보았다. 1940년 8월에 일제에 의해 동아일보가 폐간된 이후의 기사는 『매일신문』을 통해 살펴보았다.

2. 간이학교 제도의 태동

‘간이’의 개념이 처음 도입된 것은 조선이 아닌 일본이었다. 본 장에서는 일본에서 시작된 간이학교 제도와 조선에서 정식으로 간이학교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시작된 간이학교의 모습에 관해 살펴보하고자 한다.

2.1. 일본에서의 간이학교 제도

1886년 초대 문부대신을 맡은 모리 아리노리(森有禮)는 ‘소학교령’을 제정하

1) 1910년 10월 조선총독부 내무부 학무국 편집과장이 되어 교과서 편찬을 주도하던 오다 쇼고(小田省吾, 1940)가 조선총독부의 의뢰로 1935년에 『시정25년사』를, 1940년에 『시정30년사』를 집필하였다. 이 두 책은 조선총독부가 총독부의 여러 정책들에 대해 대내적으로 이를 합리화하고 뒷받침하고, 대외적으로는 이를 미화하고 선전하기 위해 쓰인 것이다.

고 혁신적인 교육제도를 시행하였다. 먼저 그는 초등교육 기관인 소학교를 심상소학교(4년)와 고등소학교(4년)로 나누고 학교 경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업료와 기부금으로 대체하고 부족할 시에 구정촌회(区町村会)의 결의에 의해 충당하게 하였다. 또한 학부모와 후견인에게 엄격한 교육의 의무를 부여하여 취학적령기의 아동들이 교육의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의무교육’을 제도로 명시화하였다. 이러한 과격적인 교육 행보로 인해 메이지 30년대 후반에는 취학적령기 아동의 90%(남녀 모두) 이상이 취학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소학교령은 전국의 소학교 교육을 엄격하게 통괄하여 소학교의 기본 구성을 확립한 것으로 교육령시대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차이를 보였다.

모리는 또한 당시에 빈민들을 위한 3년 과정의 ‘소학간이과(小学簡易科)’를 ‘심상소학교’ 대응으로 설치하는 것을 인가하였다. 그러나 심상소학교와는 달리 소학간이과의 경비는 구정촌(区町村)비를 가지고 지변(支弁)하며, 수업료는 징수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후 1890년 소학교령 개정에 의해 소학간이과가 폐지되고 대신 심상소학교는 4년의 과정에서 사정에 따라 3년 또는 4년의 과정으로 변경되고 고등소학교는 4년의 과정에서 2년 또는 3년 혹은 4년의 과정으로 변경되어 실정에 맞게 선택하게 하였다.

결국, 짧은 4년의 존속을 끝으로 내지에서의 ‘간이교육’은 막을 내렸다. 이렇게 짧은 기간의 시행만으로 간이교육의 형태가 사라질 수 있었던 것은 ‘의무교육’의 정착이 큰 역할을 한 점도 있지만, 처음부터 소학간이과는 3년, 심상소학교는 4년으로 수업연한의 차이를 크게 두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후술하는 조선에서의 사정과 크게 비교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당시 내국식민지였던 홋카이도에서의 교육은 사뭇 달랐다. 홋카이도 교육연구회가 발행한 『홋카이도교육사(1955)』를 보면 당시의 홋카이도에서의 교육은 ‘간이’와 ‘실업 중시’였다고 특징지을 수 있고 ‘개척지’라는 실정에 맞추어, ‘특수성’과 ‘후진성’을 갖는 교육이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차별’과 ‘수탈’의 교육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메이지 정부는 1887년 4월에 발표된 ‘소학교 규칙 및 소학간이과 교칙(홋카이도청령 제16호)’, ‘정촌립소학교에 필요로 하는 1년 경비에 대한 훈령(홋카이도청 훈령 제14호)’, 그리고 ‘학교설비변경폐지규정(홋카이도청령 제18호)’을 일괄해서 공포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실시해 온 학교설치 유지를 위한 각종 보조를 폐지하였다. 그리고 학교 교육에 할애하는 시간을 단축하여 학생들을 자가(自家) 생업에 종사하게 하는 ‘실정에 맞는

특수한 교육'을 한다며 소도시 이외의 소학교는 전부 폐지하고 '소학간이과'를 추진한 것이다. 또한, 하루의 수업시간은 3시간으로 하며 본래 모리 아리노리의 설립 취지와는 반대로 '소학간이과'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징수하여 이주민에게 부담하게 하였다. 이것은 내국식민지에 대한 '차별'이었으며 '후진성'을 갖는 교육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차별의 연속성은 조선에서도 이어진다.

이처럼 초기의 '간이교육'은 돈이 없어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누리지 못하는 빈민 아동을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었지만 식민지에 이르러 그것은 특수성을 빙자한 '차별'과 '후진성'을 겸비한 것으로 변모하였다.

2.2. 조선에서의 간이학교 제도

조선총독부에 의해 1934년 '간이학교' 제도가 시작되기 이전, 조선 땅에서는 무산 아동을 위한 무료 교육이 실시되고 있었다. 1928년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선천기독교청년회는 매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학생들을 모으고 보통학교 4학년 정도의 '간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간이교육' 제도의 취지에 합한 조선에서의 교육 실상의 한 예라 할 수 있다.

3. 조선 간이학교의 특징

본 장에서는 이케다 시게노리(池田林儀)가 1935년에 발행한 『조선과 간이학교(朝鮮と簡易學校)²⁾』에 수록된 교육 관련 조항을 통해 간이학교의 설립목적 등에 대해 살펴보고 당시 조선의 간이학교 제도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각 신문 기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3.1. 간이학교의 설립목적과 특징

이케다는 간이학교의 목적과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조선총독부 학무국에서는 조선에서의 문맹퇴치 전선을 확대해서 쇼와 7년(1932)³⁾ 간이학교를 설립하였다. 당국이 대차륜으로 완성을 서둘러 가는

2) 池田林儀(1935) 『朝鮮と簡易學校』 活文社、pp.1-7.

3) 1932년은 '농촌진흥정책' 추진을 시작한 해로 간이학교 제도는 1934년 1월 학비(學秘) 제

한편, 일면일교주의의 철저한 실시를 위해 최근 2, 3년간 박차를 가해오고 있는데 이 간이학교 제도를 만든 것은 조선에서는 면적이 광대한 면(촌)이 많으므로, 일면일교가 실현되어도 초등보통교육의 보급을 도모하는 것은 곤란하며, 그렇다고해서 1면 안에 2교, 3교를 증설해 가는 것도 조선 농촌의 현 상황에서 보면 재정상으로 봐도 불가능⁴⁾하며, 또한 현재의 농촌문화의 실상에도 맞지 않다.

조선에서는 농촌 아동의 약 8할은 교육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있는 개탄할 상황이다. 그 원인이 되는 것은 학교의 부족보다도 농민 생활의 저급 빈약이 주된 것으로 학교가 있어도 입학이 사실 상 어려운 것이 정말 많다. 하지만, 최근 생활 정도가 조금 향상되기 시작하여, 일면 문화적 깨임도 현저히 늘어나고, 농민들 사이에 호학열이 대두되기 시작하여 재래의 서당교육⁵⁾으로는 불완전을 벗어날 수 없고 그렇다고해서 보통학교의 증설은 불가능해국가적 견지에서 봐도 개인적 견지에서 봐도 도저히 참기 어려운 것이다.

특히, 교통이 불편한 산간 벽지에서는 교육의 은혜를 입으려해도 도저

2호로 '간이 초등 교육기관 설치에 관한 건'으로 발표되었다. 쇼와 7년(1932)이라 한 것은 필자의 오류로 보인다.

- 4) 1911년 8월 '조선교육령'이 반포되었지만, 그 안에는 학교의 설립 유지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었다. 설립 유지에 관한 규정을 위해 같은 해 10월 20일 '보통학교규칙(조선총독부령 제11호)'을 발하여 보통학교에서 도지사의 인가를 얻어 수업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10월 28일 '공립보통학교비용령(제령 제12호)'을 발하여, 공립 보통학교를 공법인이자 재산 주체로 만들었다. 설립 및 유지 재원은 '임시은사금(일본 천황이 '한일합방'을 계기로 식민지 조선에 주었다는 이른바 '하사금'으로서 그 총액은 17,398천엔이었는데 그 이자의 60%는 수산(授産)에, 30%는 교육에 그리고 나머지 10%는 구제사업에 쓰도록 하였다.)이자, 향교 재산 수입, 기본 재산 수입, 수업료, 기부금, 국고 보조금 및 지방비 보조금 그리고 그 외의 경비는 '학교 설립 구역 내의 조선인 부담금'으로 설정하였다. '조선학교비령' 시기에는 부과금, 사용료, 보조금에의 의존도가 높아짐으로써, 조선인의 부담이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오성철(2005) 『식민지 초등 교육의 형성』 교육과학사, pp.102-104.

- 5) 당시 서당의 변모해 가는 상황을 1933년 12월 1일 동아일보 기사를 통해 엿볼 수 있다. 전북도에서는 문맹퇴치를 목적으로 서당과 사립 강습소 등을 개선코저 명년도 예산에 일략 30만원을 계상하여 보통 교육 보급에 매진하리라는데 현재 동도 내에는 보통 서당이 183개소와 개량 서당이 50개처요 사립강습소가 11개소로 생도 수요가 3천여백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래 교원은 전부 유자격자를 채용하여 보통학교에 손색이 없도록 지도하여 나갈 방침이라는데 일반의 기대는 자못 크다고 한다. 경북도 내에는 현재 4백개소의 서당이 있는데 그중 90개소는 수신, 산술, 한글 등 보통학교의 그것과 비슷한 교수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나머지 310개소는 종래의 그대로 천자에서 비롯하여 공자, 맹자의 한문만 배워주는 현상이므로 도 학무과에서는 일면일교의 수행과 병행하여 점차 개량을 입안중이라 한다.

히 희망과 멀어진 얘기이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 만든 것이 간이학교다.

즉, 벽지 먼 땅에서 농촌 아동의 교육을 위해 반도 초등교육의 초미의 급에 응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간이학교의 목적으로 하는 것은 조선교육령 4조 및 보통학교 규정에 따라 특히 국민된 성격을 함양하고, 국어를 취득하는 것에 힘쓰고 동시에, 지방의 실상에 가장 적절한 직업 도야에 중점을 둘 것이라 명시되어 있다. 다시 말해 간이학교의 목적은

1. 한 사람의 일본 국민을 만드는 것
2. 국어를 읽고, 쓰고,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3. 직업에 대한 이해와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만들 것

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간이학교가 설치된 곳은 예외 없이 농촌지대이다. 그래서 간이학교의 교사는 그 지방의 아동에게 농업에 대한 이해와 능력과 취미를 가게 하는 것과, 아이들을 결국에는 훌륭한 중견국가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 교육해야 한다.

위와 같이 간이학교의 본래 설립목적은 농촌의 당시 실정을 감안하여 기존의 공립보통학교에 부설로 설치하여 짧은 기간 회화를 중심으로 한 언어교육을 실시하여 충성된 국민의 성격을 함양하고 국어를 습득하는 것에 힘을 쏟고 동시에 지방 실정에 가장 적절한 직업도야(陶冶)에 중점을 두는 것이었다. 1934년 당시 조선에서는 제2차 조선교육령(1921년) 이후 일면일교제가 활발히 시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보통학교를 가기 위해 수십 리를 가야하는 현실적인 문제와 그럼에도 턱없이 부족한 학교 수를 채우기 위한 대안으로 간이학교가 설립되었다.

위의 간이학교 설립목적은 ‘아동의 신체발달에 유의하여 도덕교육 및 국민교육의 기초와 그 생활에 필수가 되는 보통의 지식 기능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본의 소학교 목적⁶⁾과 비교하면 단순하면서도 빈약하기만 하다.

이케다가 언급한 간이학교의 특징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 이것은 1890년 소학교령 개정에 의해 발표된 것으로 이후 1941년 국민학교령이 제정되기까지 50년간 존속된 목적 규정이다. 이는 소학교의 기본 성격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당시 국가적 교육방침의 의도를 잘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간이학교는 보통학교에 부설된 것으로 조직과 편성은 독자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다.

1. 수업연한은 2년일 것
2. 학급수는 1학급(단급편제)일 것
3. 입학 아동의 연령은 10년이 표준일 것
4. 아동의 수용 정원은 대략 80명으로 하고, 초년도에 대략 40명, 차년도에 40명을 모집할 것, 다만 초년도부터 제2학년분을 모집할 수도 있다.
5. 교원은 1교 1인, 학급소재지에 정주할 것

이 외에 교과목은 수신, 국어 및 조선어, 산술의 3단위를 포함한 보통교과와 직업의 4과목이다. 매주 교수 시수는 매주 30시 이내, 보통교과와의 비율은 대체적으로 2대1로 한다. 다만 보통교과와 직업과의 매주 교수 시수는 1년의 총비율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절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다.

위의 특징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농촌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보통교과와 직업교과로 나누어 계절에 따라 농업실습의 시수를 늘려가며 수업을 진행하였다. 수업연한은 2년으로 각 학교에 개설할 수 있는 학급의 수는 1학급, 40명이 정원이었다. 즉 2개 학년 80명의 정원으로 운영된 비정규 과정⁷⁾이었다. 주로 재정적인 이유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하급 계층의 아이들을 흡수하며, 1943년 제3차 조선인 보통교육 보급 확대 계획이 실시되기 전까지 전국에서 활발히 성행하였다.

3.2. 간이학교의 급성장

간이학교는 1934년에 384개교가 개교한 이래 1935년에는 579개교, 1936년에는 880개교에 이르는 등 급속도로 성장해 갔다. 급성장의 가장 큰 요인은 공립 보통학교의 학급 수 부족이다. 이러한 상황은 다음의 여러 기사⁸⁾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7) 비정규과정이라고 하는 이유는 2년의 과정을 수료해도 수업연한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급기관으로 진급할 수 없고 이것으로 학습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8) 본고에서 인용하는 기사의 한글표기는 당시의 표기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표기와 맞춤법 등이 다를 수 있음을 밝혀둔다. 또한 위의 기사에서 ‘보교’는 ‘보통학교’의 줄임말로 당시 기사에 사용되었다.

전북 이리 공립보통학교는 현재 13학급에 근 천명의 생도를 수용하는 터인데 매년 입학기가 되면 140명 가량 모집에 2,3백 명씩 초과되어 학교 당국은 물론 지방 측에서도 의론이 비등하여 제이보교설 혹은 현보고내 학급 증설에 대한 말이 많았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실현에는 달치 못하였다. 금번 간이보교 설치론이 당국으로부터 발표되자 이리보교 당국자 동후원회 지방 유지 측에서는 이구동성으로 현보교에 간이보교를 겸설하고 의미에서 교원 이명을 증원하고 수업은 오전 오후로 나누워 하면 재래보다 배 이상의 아동을 수용할 수 있다하며 방금 그 실현에 착수 노력중인데 벌써부터 입학 지원을 제출하는 아동이 많다고 한다.

- 「입학난을 완화코저 이리보교에 간이교」 1934년 1월 31일 동아일보 4면-

위의 기사를 살펴보면 당시 전북 이리의 교육 현황은 입학난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이고, 학교를 신설하거나 학급을 증설하는 것도 당국의 허가를 받는 등 절차가 복잡하여 실현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에 비해 간이학교는 수업연한은 2년이지만 다소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1934년 1월에 간이보통학교 설치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발 빠르게 증설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전국 각지에서 볼 수 있다.

조선에 불취학 아동과 취학년령 지난 농촌문맹 아동들을 위하여 간이학교를 설치할 계획중이라고 함은 기보한 바와 같거니와 함남도에서도 각군을 통하여 실시 계획을 진행중이라는 바 대개 금년 3,4월까지 조사를 필하고 명춘 4월부터 개교할 계획이라는데 본도 안에는 16군에 평균 2교씩 개설할 것인 바 지역을 따라 수를 늘리기도 하고 감하기도 할 것인데 도합 32교를 설치할 것이라고 한다.

- 「함남에 간이교 삼이교계획」 1934년 2월 20일 동아일보 3면-

당시 보통학교 입학 가능 연령은 만 6세에서 만 10세까지이었다. 앞서 살펴본 간이학교 설립 특징을 보면 간이학교의 입학 가능 연령은 평균 10년이라고 되어 있어 위의 기사와 같이 취학연령이 지난 아동들도 입학 할 수 있었다. 또한 위의 기사에서 주목할 점은 1934년 1월에 설치 계획이 발표된 이후 농촌의 실정에 따라서는 바로 당해년도에 간이학교가 설립되지 못하고 1934년에는 준비 작업을 하고 1935년에 개교하는 학교도 있었다는 사실이다.

3.3. 간이학교의 형태

간이학교의 설치는 기본적으로 보통학교에 부설하여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농촌에서는 보통학교까지의 거리가 멀어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서당에서 간이학교 과목을 교육하는 형태가 많았다고 한다. 왜냐하면 간이학교 교육은 단순히 학습의 목적 뿐만 아니라 졸업 후의 진로와 일신상의 상담까지 모든 영역을 교사가 담당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농촌에 기존에 존재한 서당의 훈장은 단기간의 강습을 통해 교과목을 학습하고 학생들을 가르쳤다. 하지만 그마저도 원한다고 모두 다 간이학교로 승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서당교육의 형태를 다음의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봉천시에서 북쪽으로 약 오리 보합보 지주동포(빈민촌) 3백여호는 그날 그날의 노동으로 조반석 죽이나마 끼를 넘어가며 지나가는 하나 산(생) 정신을 가진 그네들은 아무리 부평초같은 생활을 하고 있으나 서로 의지하는 힘이 없이 지냄은 늘 유감으로 생각하여 왓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얼마 전에 제씨의 발기로 촌내회라는 회를 조직하여 가지고 그 회의 결정이 자라나는 자제들의 문맹됨을 통탄히 느끼고 작년 9월에 서당식 간이학교를 설립하였던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아무런 후원이 없고 빈약한 그네들은 도저히 유지의 곤란과 또는 설비에 불완전이라든지 학생수가 나날이 증가됨에 따라 지난 구정을 이용하여 촌내 회의 발기로 농악대를 조직하여 가지고 시내 각 상점과 유지제씨에게 동정을 얻은 것이 육백여원에 달하였다고 한다. 다시 힘을 얻은 그네들은 다시 교사를 수리 증설하고 지난 12일 오후 1시에 창립개교식을 행하였는데 현재 수용 학생수는 남녀 70여명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학생은 나날이 증가한다고 하여 일반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한다.

- 「이역동포의 힘 간이교 설립」 1936년 2월 18일 동아일보 3면-

위의 기사에서 주목할 점은 서당식 간이학교를 설립하였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당시 그날 그날의 노동으로 끼니를 연명하기도 힘들었던 빈민촌의 동포들이 자식들의 앞날을 위해 농악대를 조직하여 모금활동을 하였다는 점이다.

이 밖에도 간이학교의 형태는 기존의 사설강습소나 사립학교에서 간이학교로 승격되는 경우도 많았다. 구체적으로 기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금번 이년제 간이학교 설치에 경북 의성군은 2개교만 배정되어서 적당한 지대를 찾다가 비안면 산제동과 신평면 안사동, 비안면 이처에 설치하기로 내정되었다. 이 두면에는 이미 보통학교가 있으나 거리도 멀고 준령이 있어 통학 불가능하므로 사설강습소를 변경하여 간이학교로 할 계획이라 한다.

- 「의성에 간이교 이개소 설치」 1934년 3월 1일 동아일보 5면-

또한 아래의 기사들과 같이 재정 곤란으로 폐교의 위기에 놓인 사립학교도 간이학교로 존속하기 위해 지방 유지들의 노력이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옥구군 서수면 서수학원은 1928년 4월에 설립되어 면내 무산아동의 유일한 교육기관으로 수백 아동을 교양하여 오든바 동 학원을 경영하던 동면 청년회가 해산된 후 용회리 진흥회에서 인계 경영하였으나 재정 곤란으로 폐문할 비운에 빠졌는데 지방 유지들은 기타 대책으로 동학원을 간이보통학교로 존속하려고 면민의 연결진정서를 군당국에 제출하고 운동중에 있다한다.

- 「간이교 운동 옥구군 서수면서」 1934년 12월 23일 동아일보 5면-

영흥군 장흥면 인명학원은 십이년간을 하로같이 농촌 아동 교양에 만흔 공헌이 있어오든바 금번 이것을 간이보통학교로 승격하고자 전기제씨와 해 지방 인사들은 크게 노력중이라 한다.

- 「간이교운동 인명학원에서」 1935년 2월 1일 동아일보 5면-

이러한 가운데 간이학교의 증설로도 다 수용되지 못하는 무산아동을 위해 야학을 개설하여 교수한 사례가 있다.

함남 정평군 고사면 흥봉리에는 지난 5월부터 간이보교를 설치하고 무산아동을 교육 시킨다함은 기보한 바어니와 선생 유병학 씨의 열성으로 동교에다 야학부를 신설할게 함으로 일반 유지와 타합한 결과 8월부터 개교하여 교수한다는바 일반은 유병학씨의 미거에 대하여 칭찬이 높다한다.

- 「간이교에 야학」 1934년 8월 2일 동아일보 5면-

사람은 먹어야 사는 것과 같이 배워야 사는 것이다. 그러나 배울라고 해도 배울 곳이 없어 해매는 것은 일반이 다 아는 바이다. 함남 함주군 주지

면 지경야학교를 창설하고 지경공보 선생들은 자진하여 지난 5월부터 학생 남녀 150명을 모집하여 금일까지 교수항 온다함은 본보에 누보한 바와 같거니와 과목은 간이학교 것을 교수하고 수업연한은 간이교와 같이 이개년으로 정하였다한다. 그리하여 홍상 일대에 연량 초과한 아동을 수용하여 무보수로 또는 낮에 교수하고 밤에는 쉬어야되겠는데 피곤함을 무릅쓰고 그와 같이 열심히 교수함에 일반은 크게 감동하였다하며 모든 경비는 누보한 바와 같이 매년 3백원씩 홍상계 동풍서 삼개리에서 경상비로 지출하고 현재 비어있는 공제회관을 이용중인 바 이름은 야학이나 모든 준비와 정도는 낮에하는 간이교 이상이라 한다. 하며 교원의 씨명은 다음과 같다. 교장학전(鶴田), 선생 한종순, 이정건, 김홍택, 오촌(輿村), 선생 최남승.

- 「지경야학경영 공보훈도들이」 1935년 10월 6일 동아일보 5면-

위의 기사에서 주목할 것은 지경야학교가 홍상 일대의 취학연령을 초과한 아동들을 수용하여 야학을 열었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야학을 운영하는 실무진이 지경공립보통학교 교사들이었고, 무보수로 봉사하였으며 그 주가 된 교장과 일부의 선생님이 일본인이었다는 점이다.

또한 교육을 받고자 해도 수업료가 없어 학교에 못 오는 학생들을 위해 수업료를 안 받는 간이학교가 있어 기사화되었다.

의무교육제도는 가망조차 묘연한 조선 실정에 있어 수업료 안 받는 특이한 학교가 고원군하에 생겼다. 동군 운곡면 용평리에는 6,7년 전부터 사립학원이 창립되어 꾸준한 육성사업에 진수하여 왔었는데 얼마 전에 유지 안태진, 양상렴, 김상룡, 안명섭 등 제씨의 노력으로 간이학교로 승격시켰다한다. 그러나 동지방은 화전지대이므로 아동의 수업료 부담이 불가능한 실정에 감하여 기본금을 히적립시켜서 그것으로 활용하게 하고 학생에게서는 일꾼의 수업료도 받지 안는다는바 고원에 있어 특이한 존재라고 한다.

- 「수업료 안 받는 특이한 간이교」 1935년 10월 27일 동아일보 4면-

당시 보통학교 1년 수업료는 8원 80전이었다고 한다.⁹⁾ 간이학교의 수업료는

9) 1932년 당시 함경북도 경원군에서 쌀 한 말이 1원 70전, 좁쌀 한 말이 80전, 소주 4홉들이 한 병이 200전, 여름용 모자 한 개가 1원이었다. 경원군 안동 보통학교 수업료 월 80전은 약 쌀 다섯 되 값, 좁쌀 한 말 값, 소주 네 병 값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전계서, 오성철(2005) p.167.

매달 20전 정도였다고 하니 1년이면 2원 40전으로 보통학교 수업료의 약 1/4 정도에 해당한다. 당시 교과서 한권이 대략 16전 정도 했으니 매달 책 한권보다 조금 높은 금액의 수업료를 냈지만 그마저도 낼 수 없는 형편의 아동들이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4. 간이학교 설립비용 조달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에 간이학교는 전국 도시군에 학생 수를 감안하여 배당하는 형태였고 각 군면에서는 당 면에 간이학교를 유치하기 위해 혈안이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빈곤한 지역에서는 간이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일이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였다. 간이학교 설립비용을 기부한 사람들의 사연과 처지는 다양하다.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황해도 곡산군 이녕면 추전리 전학인씨는 깊은 산골 생장으로 겨우 조밥이나 먹는 살림을 하는 중 자기 소유 토지 중 제일 좋은 밭 1200평을 이번 에 신설되는 이녕간이교 부지로 제공하였다 한다.

- 「전학인씨 미거」 1934년 5월 18일 동아일보 6면-

신안주 용계명암 양리에 있는 유지제씨는 무산아동 교육기관인 간이학교를 설치하기 위하여 기금을 모집하는데 자진히 사한 금액이 수천원에 달하였다는 기보한 바어니와 해 지방은 종래부터 순소작농가들만 거주하였으므로 빈민굴이라는 별명까지 받아왔다한다. 그러나 현하의 정세가 무산아동으로서는 교육을 도저히 받을 수 없으믄 각오하였던 바이므로 금전이 없는 사람들은 먹던 쌀을 방매하여서라도 다토와 출금하므로 벌서 대표자 장광일씨 방에 적립한 금액도 천여원에 달하였다는데 각각 십원에서 4백원까지 기부하였다.

- 「간이교 설치에 기부금 답지」 1935년 2월 6일 동아일보 5면-

위의 기사 외에도 간이학교 설립을 위해 기부한 사람의 미담을 실은 기사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때로는 본인의 회갑연의 돈을 아껴서, 혹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지를 받들어, 그 중에는 위의 기사처럼 빈민굴이라 불리우는 가난한 동네에서 자진하여 먹던 쌀을 팔아서 자금을 대고 자신의 가난한

처지는 아랑곳 하지 않고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 가장 아끼는 땅을 내놓는 사람들과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마다하지 않고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기부하였다. 그만큼 배움에 대한 갈망을 해소하기 위한 운동에는 너와 나가 따로 없이 동참하였음을 알 수 있다.

3.5. 간이학교의 일본어 교육

간이학교에서의 일본어 교육의 실태는 조선총독부에서 편찬된 간이학교용 국어독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1935년에서 1936년에 편찬된 『簡易学校 国語讀本』(권1-4)과 1941년에 편찬된 『初等国語讀本 簡易学校用』(권1-4)의 두 종의 교과서가 있다. 1935년 3월 30일의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간이학교 국어독본은 종래의 국어독본보다 농촌의 실정에 맞는 교재구성으로 되어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 중에서 1935년에 편찬된 『簡易学校 国語讀本』의 권2의 내용을 살펴보면 권2는 총 31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신화 및 천황에 관한 국가주의적인 내용의 단원이 8단원으로, 나머지 23단원은 농촌생활, 절기 등에 관한 단원들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계절의 변화와 함께 농촌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관한 내용들이 많으며 권2는 가을학기부터 학습하는 까닭에 주된 내용은 추수부터 이삭줍기, 겨울나기(비오는 날과 눈이 오는 날에는 새끼를 꼬아 열심히 가마니를 만들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 보리밭기, 콩 고르기, 밭갈이 등 자연스레 학습하며 농촌에서의 생활을 익히는 단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주인공의 이름도 태길, 을성, 동익, 문길, 정희, 정길 등 친근한 이름의 주인공들이 등장하였고, 지게(チゲ), 괭이(鋤), 곡괭이(唐鋤), 호미(ホミ), 낫(鎌), 가래(鋤) 등의 농기구와 도라지꽃(キキョウ), 마타리(女郎花), 아카시아(アカシア), 돼지감자(サクイモ) 등 농촌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명 등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간이학교 설립 목적에 농촌의 실정에 맞는 직업도야를 중점으로 두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조선 간이학교의 변화

본 장에서는 도시 간이학교의 형태와 간이학교에서 정규학교로 승격해 가는 과정, 그리고 의무교육을 향한 요구 등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4.1. 도시 간이학교

처음에는 농촌의 소외된 지역의 아동들을 위해 설립된 간이학교 제도였지만 도시로 밀려드는 인구를 감당해 낼 수가 없어 도시에도 간이학교가 생겨났다. 도시에서는 보통학교에 소속된 교사(校舍)와 교지(敎地)를 사용하고 교원의 겸임도 가능했다. 아래의 기사를 보면 당시 도시 간이학교 설립 배경을 살펴볼 수 있다.

찬란한 문화적 모든 시설이 도회로만 집중되어 날로날로 번창하여가는 일면을 보여주는 동시 농촌의 부호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도시로 불러드리게 하는 것이 오늘날 조선의 병적 발전을 가져오게 하는 것으로 그중에도 오늘날 농촌을 고쳐림 거칠게하여 노흔 중대한 원인의 하나로 실로 이문화적 시설이 도시에만 집중되어 가는 까닭이라 함은 너무도 밝은 일이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농촌의 부호 또는 빈한한 사람들의 도시 집중을 막고 나아가서는 농촌을 진흥케 하고저하면 현대의 문화적 시설을 도시에만 편중하게 하지 말고 좀더 보편화한 방법으로 농촌에서도 그 혜택을 힘입게 하자하는 부르지즘이 잇는지 이미 오랬고 또 당연한 부르지즘이엇음에 불구하고 함남도 당국에서는 이제까지 농촌에 한하여 1929년부터 설치하여오든 간이학교를 도시에도 설치하여 문맹을 없이하고자 하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제 그 계획의 대강을 살펴보면 도시는 상공의 발전과 경제계의 호전 등으로 담세력이 박약한 빈민계급이 증가하여 보통학교의 입학난을 더욱 격심케 하고 잇고 또 자격관계와 연령관계로 입학할 수 없으므로 그 도시의 실정에 비치어 명년도부터 공립보통학교에 부속 간이학교를 설치하여 연령이 초과된 어린아동들을 수용하고 여자들도 수용하여 재봉 등 간이교육을 할터이라 한다. 그런데 그 경비는 1교 1개년에 천원 가령을 예산으로 하여 사할은 국고보조, 이할은 도비보조 기타는 월사금 등으로 충당할 터이라고 하는데 이처럼 농촌에만 설치하여 문맹을 퇴치하고자하든 기관마저 도시로만 집중시키게 되면 결국 농촌이 점진적으로 피폐하여 가고 도시도 역시 건전한 경장 발전을 하여가게 될른지 적지 안케 의문으로 되어 잇으나 도 당국은 벌써 구체안을 작성하여 명년부터는 실시하여 불 심산을 가지고 잇으므로 그 성과는 적지 안케 주목되어 있다.

- 「농촌 중심으로 간이교, 금후론 도시에도 시설」 1936년 5월 26일 동아일보

5면-

위의 기사에서 주목할 점은 ‘간이학교 설립 목적’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간이학교 설립 목적은 농촌계몽이었다. 또한 교과목도 보통교과와 직업 과목을 두어 농업교육을 우선 하는 것에 있었다. 그런데 도시 간이학교의 형태가 생겨나고 연령이 초과된 아동을 수용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농업교육을 할 수 없음에 도시 간이학교에서는 새로운 직업교육이 실시되었고, 여자들도 수용하여 재봉 등의 간이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위의 기사에서는 이렇게 도시 간이학교 형태가 늘어나며 결국에는 농촌이 점진적으로 피폐하여 가고 도시는 발전하여 격차가 벌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와 같이 다음의 기사를 보면 1937년 대구에서 점차 간이학교의 형태가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구부에서는 부내 초등학교 교육진의 일대 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금년부터 실시 중인데 그 중 도시 간이학교는 부내 공립 3보교에 3교, 8학급을 신설하게 되었고, 다시 명년도에는 서부보교에 2학급 편성의 간이학교를 신설하고자 계획중이라고 한다.

- 「대구교육진의 강화 명년에 간이교증설」 1937년 10월 22일 동아일보 7면-

4.2. 정규학교로의 승격

조선총독부는 1936년에 일면일교제가 완성되면 간이학교도 일면일교제를 실시하고 성적을 보아 보통학교로 승격시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이 들어나 있는 기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기도 학무과에서는 3대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강구중인데 그 내용에 의하면

1. 1934년부터 보통학교에 조선인 교장을 채용하였든바 성적이 예상 외로 양호하여 이번에는 이것을 훨씬 확장하여 도내에 있는 보통학교 총 수의 일할에 해당하는 정도로 조선인 교장을 증원하자는 것이고,
2. 체육 향상의 적극책으로 도에 체육 위생주사를 두어 각 학교 교의를 항상 감독하고 편달하자는 것이다.
3. 셋째로 1934년 이후 경기도내에서 이백 간이학교를 각 군에 분배하였든바 경기도는 비교적 교통과 문화가 타도에 비하여 훨씬 진보된 편이라 간

이학교의 필요가 매우 희박하다하여 이것을 전부 보통학교로 승격하자는 것이다.

- 「간이교를 보교로 승격 조선인교장 증원」 1937년 11월 12일 동아일보 2면-

단산군 안면면 중장간이학교는 1937년 6월에 설립되어 교사부지 4293평과 교사 두 동을 정비하여 현재 학령아동 713명 중 58명은 취학하였으나 그 외 미취학아동 656명은 거리관계로 인접 고남 안면학교에도 취학할 수 업서 명춘 신입학기를 앞두고 취학하고자 하나 배울곳이 업서 도로에 방황하는 다수한 아동의 초조는 극에 달하여 잇슴으로 명년도에는 국민학교로 승격을 하지 안이하면 불가한 상태에 잇슴으로 학부형 대표는 10일 군당국에 출원하여 명년도에는 국민학교로 승격을 진정하였든바 에모토군수는 도당국과 협력하여 선처하기로 하였다한다.

- 「간이교 승격 진정」 1941년 12월 17일 매일신문 3면-

위의 기사들을 살펴보면 간이학교 규정에 의해 2학급만 설치할 수 있지만 학령기 전체 아동의 1/10도 취학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학교로의 승격을 진정하고 있다. 국민학교로 승격하기에는 여러 가지 갖추어야 하는 규정도 까다롭지만 일단 학급의 수를 늘리고, 다수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가 소원하는 일이었다.

4.3. 의무교육에 대한 요구

지금까지 조선에서의 간이학교 제도의 실상을 살펴보았다.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조선에서의 간이학교 제도는 농촌계몽을 위한 목적보다는 부족한 취학 적령기의 아동을 수용하기 위한 수용시설 보급에 치중되었다. 조선은 당시 보통학교 6년, 국민학교(1943년부터) 6년의 정규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중이었다. 그런 와중에 상급학교로는 진학할 수도 없는 2년이라는 짧은 교육 과정으로 초등교육이 아닌 교육 전체를 종결 짓는다는 것은 조선에서의 교육의 질저하를 초래하는 근본 원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의무교육을 바라는 일반인들의 요구는 거세었다. 이러한 세태를 꼬집은 기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계 문명국은 저마다 숭선하여 인민의 의무 강제교육을 시행하고 잇는 바 우리 조선에 잇어서는 아직까지 그러한 계획도 세워 잇지 못한 것은 실

로 통탄할 일이다. 완성된다고 하여도 겨우 조선학령 아동의 삼할 밖에 수용력이 없을 일면일교제도 1936년에 가서야 완성이 되리라 하니 의무교육은 바라다 보지도 못할 형편이다.

당국에서는 급한 응급책으로 간이학교를 또한 일면일교로 실시하여 차차 성적 보아서 보교로 승격을 시킬 방침이라 하니 이는 우리가 항상 주장하는 바로서 그 성공을 축하려 한다. 그러나 우리의 주장은 일면일교에 끄치는 것이 아니고 의무교육 실시에 잇는 것이니 당국은 보통학교 의무교육 완성의 일단계로 학령아동 전부를 수용할 수 잇는 간이학교 완비를 계획할 성의와 용기를 보혀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 「교육의 양과 질」 1934년 5월 11일 동아일보 1면-

조선에서 당면 문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교육문제를 들지 안를 수 없을만치 전반적 교육 시설의 확충은 긴급하다. 그 실례는 일일 지적할 것도 없이 작금 경향을 막논하고서 계절적으로 찾아온 입학난의 소동으로 보아서 넉넉히 짐작할 수 잇는 일이다. 중등학교 이상의 전문대학에 입학난이 잇다는 것은 그다지 괴이한 일이라고 할 수 없으나 인생 팔세의 입학에 당하여 시험을 보지 안흐면 학교에 갈 수 없다는 것은 으즉 이 땅에서만 볼 수 잇는 일로 조선에도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겠다는 것은 한가지 시대적 요구 정도가 아니라 일체 시설의 근본문제로 되어 잇는터이다.

오늘 조선의 초등교육 현실을 보면 취학적영아동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입학지원 아동도 전부 수용하지 못하는 터이어 현재 취학아동은 총 취학적영 아동의 삼할도 되지 못한다. 이에 대하여 총독부에서도 그 다수수용을 목표로 재작년부터 실시한 제2차 초등교육 확충계획에 의하여 학급증가와 학교신설에 주력하는 중 금년 사월부터 신증설할 것은 전 조선을 통하여 1982학급, 이부제 실시로 인한 학급증가가 147, 간이학교 증설에 의한 학급증가가 이백입, 합계 2349 학급으로써 한 학급에 평균 70명식을 수용한다고 하면 약 16만명의 학령아동을 더 수용하게 되어 입학지원 아동 중에서 그만큼 더 수용하여 입학난이 다소 완화될 것이나 아직도 지원 아동의 전부 수용까지는 전도요원한 감이 없지안흔 터이다.

그러면 현재 조선의 초등교육 상황은 어떠한가? 재작년인 1937년 5월 현재로 총독부 학무국 조사에 의하면 관공사립의 초등학교를 통합하여 이천육백일교에 재학한 아동은 구십만육천오백칠십인이다. 여기에 작년 신학기에 확

충한 초등교육 계획에 의하여 약 십오만삼천명이 더 수용되었을 것이 예상되므로 현재 취학 아동중 수는 백오만삼천여명으로써 겨우 백만대를 돌파하였다. 그리고 전기한 바와 같이 금년 사월부터 확충되는 학급이 전부 이천삼백사십구개이므로 이것까지를 총합하면 약백십만명이 금춘 사월 현재로 취학하게 된다.

그러면 전기와 같이 금춘 사월부터 백이십일만 명이 취학하게 된다면 전 조선학령아동의 몇%가 취학의 기회를 얻게 되는가? 조선 현재 인구는 이천삼백만인으로 통칭되고 또 의무교육을 받을 연령의 취학 적령 아동수는 각국의 전례에 의하여 천명중에서 백삼십오명으로 추정하여 계산하면 총취학 적령아동수는 삼백십만오천여명으로 된다. 이것을 전기 사월 현재로 취학되는 백이십일만 명과의 비율을 보면 약 삼십칠%가 취학하게 된다. 그러니 현재 각국의 선례는 그만두고라도 일본 내지에서 의무교육의 실시로 취학 적령아동이 구십구%여가 취학을 하고 있는데 비교하면 문제가 되지안코 지원 아동도 다 수용하지 못하는 터이니 앞으로 이차 확충안이 끝난 후에 다시 좀 더 단기간이요 방대한 확충계획을 수립하여 취학 적령아동을 다수 수용하는 것은 물론 의무교육의 실현까지 보지 안흐면 안될 것이라 한다.

- 「긴급 초등교육의 확충」 1939년 3월 5일 동아일보 2면-

위의 기사에서 주목할 점은 의무교육을 받을 연령의 취학 적령 아동수와 총 취학아동의 비율을 계산하면 37%가 되고 이것은 일본 내지의 의무교육 실시로 1939년 당시 취학 적령 아동의 99%가 취학하는 것과 비교하고 있는 점이다. 이것은 간이학교까지를 반영한 것으로 일본이 1911년 ‘조선교육령’을 반포하고 30년 가까이 지난 이 상황에서 전체 취학 아동의 37%만이 취학할 수 있다하면 조선총독부가 조선의 교육 현실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했음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물론 의무교육의 계획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먼저 아래의 기사를 살펴보자.

의무교육 실시에 따라 국민학교의 증설 계획은 전역을 통틀어 진행되고 있는데 개성군에서는 1943년도부터 1951년까지 9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작년에 이미 11개소 간이학교 중 6개 간이학교를 국민학교의 분교장으로 승격케 하고 다시 올해 4월부터 6개 간이학교도 승격케 함과 아울러 중서 몽덕 양 초등학교의 오후부 학급을 보통 학급에 편소를 하여 함께 8개 학급을 올해

4월부터 증가하기로 되었다. 그리고 1951년도가 되면 현재 92개 학급에 141개 학급이 증설되어 234학급으로 되어 올해의 승격을 한 간이학교는 다음과 같다.

- 「6개 간이교 승격 의무교육에 대비코저」 1944년 3월 7일 매일신문 2면-

일본은 1942년 조선에서의 징병제 도입과 함께 의무교육 실시계획을 발표한다. 이에 의하면 1946년부터 의무교육제를 실시하기로 계획되어 있었고, 이 계획에 따라 국민학교 증설 계획이 전역을 통틀어 진행되었으며, 간이학교 또한 국민학교로 승격되는 과정을 위의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 결론

이상으로 본고에서는 일제강점기 조선의 간이학교 제도에 관해 살펴보았다. 간이학교의 본래 목적은 소외된 농촌지역의 학생들을 짧은 기간 교육하여 농업의 실전에 활용할 수 있는 일꾼들을 키워내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취학적령기의 아동들을 수용하기 위한 공립보통학교의 수가 부족하여 입학난에 시달리는 아동들을 위한 보조적인 교육기관으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간이학교는 교육과정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급 교육기관으로 진급할 수 없는 2년의 종결교육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배움에 대한 갈망은 높아만 갔고, 그 수를 다 수용하기 위하여 초기에는 사립강습소나 사립학교, 개량서당 등을 간이학교로 승격시켜 운영한 사례들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농촌을 중심으로 간이학교를 유치하려는 경쟁이 심화되었으며, 간이학교 건설을 위해 지방 유지들부터 가난한 소작농까지 자신들의 자녀들만은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 기부하였다. 이러한 간이학교의 확산은 1942년 의무교육 실시 계획 발표와 함께 국민학교로 승격되는 형태로 종결되어 갔다. 그러나 조선인들이 줄곧 가장 원하던 바는 의무교육 제도의 실시였다. 일본에서는 소학교령에 의해 의무교육이 실시되며 1930년대에는 취학적령기의 아동 99%이상이 취학하는 것에 비해 조선에서는 1939년에도 약 37%의 아동만이 취학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당시 조선총독부 당국이 조선의 교육에 대해 재정적인 지원과 관심을

얼마나 소홀히 했는가를 체감할 수 있다.

그동안 간이학교 제도는 농촌계몽을 위한 비정규 교육과정으로 그 역할이 크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연구 면에서도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본고를 통해 간이학교는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성행하였으며, 취학 적령기의 아동들이 시설 부족으로 입학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배움의 갈증을 해소시켜 줄 중요한 보조역할로서 자리매김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보통학교 6년 과정에 비해 수업연한이 2년뿐이라는 것은 전술한 홋카이도의 예처럼 식민지에서 행한 강력한 ‘차별’과 ‘후진성’으로 비추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간이학교 제도상의 실제 교육 내용에 관한 고찰은 일부의 예로 대신하였는데 금후 간이교육 교과서 내용을 바탕으로 보통학교 교육 내용과의 격차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박제홍(2015) 「간이학교의 황민화교육-조선총독부편찬 간이학교용 교과서를 중심으로」 『일본어교육연구』 vol.73, 한국일본어교육학회, pp.195-209.

박찬승 외(2019) 『국역 조선총독부 30년사 상, 중, 하』 민속원, pp.842-855.

오성철(2005) 『식민지 초등교육의 형성』 교육과학사, pp.102-104, p.167.

이승구·박봉배(2001) 「한말 및 일제강점기의 교과서 목록 수집 조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연구보고서』 1-5, 재단법인 한국교과서연구재단, p.34.

정혜정(2008) 「일제하 간이학교(1934-1942)와 근대 노작교육」 『한국교육사학회』 vol.30-2, pp.119-145.

池田林儀(1935) 『朝鮮と簡易学校』 活文社, pp.1-7.

久保田優子(2008) 「近現代韓國の日本語教育—簡易学校について—」 『九州産業大学国際文化学部 紀要』 第39号、九州産業大学国際文化学部, pp.12-135.

北海道教育委員会(1955) 『北海道教育史』 北海道教育研究所, p.1081.

논문 투고 일자 : 2020. 09. 30.
 논문 심사 일자 : 2020. 10. 26.
 게재 확정 일자 : 2020. 10. 28.

<要旨>

日本植民地時代朝鮮における簡易学校制度に関する一考察

宋淑正

簡易学校の本来の目的は、疎外された農村地域の児童を短期間に教育させ、農業の実践に活用できる活動家を育て出すためだった。しかし、本来の目的とは異なり、就学適齢期の児童を収容するための公立普通学校の数が不足して入学難に苦しむ子どもたちのための補助的な教育機関に過ぎなかった。ここで重要なことは、簡易学校は教育課程を認められないため、上級教育機関に進級することができない2年の終結教育だったという事実である。それにもかかわらず、この地で学びへの渴望は高く、その数をすべて収容するために、初期には私立講習所や私立学校、改良書堂などを簡易学校に昇格させて運営した事例を見ることができた。そして、農村を中心に簡易学校を誘致しようとする競争が激化され、簡易学校建設のために、地方の有志から貧しい小作農まで自分たちの子供たちだけは学びの機会を逃さないように、自分のすべてを打ち明け寄付した。これらの簡易学校の拡散は、1942年の義務教育の実施計画の発表に伴い、国民学校に昇格される形で終結されていった。

A Study on the Simple School System in Japa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Song, Sook-Jeong

The original purpose of the junior high school was to educate children in marginalized rural areas in a short period of time and to develop activists who could utilize them in agricultural practice. However, unlike its original purpose, it was merely an auxiliary educational institution for children suffering from admission difficulties due to the lack of public schools to accommodate children of school age. What is important here is the fact that the simple school was a two-year final education that could not be promoted to a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because the curriculum was not allowed. Nevertheless, there is a high craving for learning here, and to accommodate all of them, we see cases where private schools, private schools, improved books, etc. were initially promoted to simple schools and operated. I was able to. And competition to attract simple schools is intensifying mainly in rural areas, and for the construction of simple schools, only their children, from local volunteers to poor peasants, do not miss the opportunity to learn. I confessed everything and donated. The spread of these simple schools ended in the form of being promoted to national schools with the announcement of the implementation plan for compulsory education in 1942.